

공동체 소식



연중 제24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 오늘은 '연중 제24주일' 입니다.

■ 부임 미사 및 환영식

- 오늘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희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제7대 주임이신 박종수 펠릭스 신부님을 모시고 부임 미사와 환영식을 거행합니다.
부족하나마 저희 정성을 모아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새로 부임하신 박종수 펠릭스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 목주기도 5단, 사제를 위한 기도

■ 추석 합동위령미사

- 9월 23일(주일)은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들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은총을 되새기고,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의 은총을 얻도록 기원하는 '추석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 본당 평협회

- 일시: 금일 주일 미사 후 (나자렛 관)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9	215	180	68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김정빈 바오로
차 주	정예찬 미카엘	김정훈 로베르토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녜스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차 주	행사 2조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차 주	강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9	46명	-	-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시니, 우리를 가련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각자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합니다. 아픔은 영혼의 힘입니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아픔의 계단을 밟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5-9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화 답 송: Fine.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4-18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5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생명의 말씀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분은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입니다. 폴란드 사람인 콜베 신부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점령했을 때, 나치 정권의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어느 날, 형무소에서 한 사람이 감시를 뚫고 탈출을 하자, 간수들은 그 보복으로 수감자들 중 열명을 무작위로 지목하여 처형하기로 합니다. 이때, 지목된 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콜베 신부님은 선뜻 그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겠노라며 자원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2주 이상을 감방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동료 수감자들을 격려하던 신부님은, 마침내는 독극물 주사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낯고 더러운 죄수복을 입고 감방 안에 초라하게 웅크린 신부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팍에 붙은 수인 번호 16670만이 그의 신원을 희미하게 드러낼 뿐, 수도복도 십자가도 기도서나 성경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화려한 제의를 갖춰 입은 사제보다도 더 진실된 주님의 사제임을,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명확한 표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위해 기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한 콜베 신부님의 모범은, 참다운 신앙이란 결국 말이나 어떤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시듯 말입니다.

콜베 신부님을 바라보며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에는, 저도 나중에 사제품만 받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성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제가 되

고 보니 매일매일이 새로운 출발선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사제임을 증거하는 것은 신학교 졸업장도 성직자 신분증도 아니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일상의 매 순간에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세례증명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희생과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과연 말로써가 아니라 행위로써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그리스도는 행복의 스승 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외부인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긴다고 제자들이 전합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고 대답합니다.

- 김창선 요한 세례자 | 가톨릭영성독서지도사 -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베드로의 고백 - 피에트로 페루지노

말씀의 이삭

침묵의 주

여섯 살 때의 어느 겨울밤. 곤히 자던 제 귀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한 종소리와 어우러진 차임벨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집 주변 어느 교회였던 듯합니다. 그 소리에 홀리듯 잠에서 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창문 바깥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드러운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곡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은하게 공명하는 울림 안에서, 어린 마음에도 지극히 성스러운 어떤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윽고 음악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음악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침묵 속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만난 성가입니다.

하루 종일 전축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접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에 들어간 저는 곧 성가대와 인연을 맺어 오르간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흥이 나서 성가를 부르더라도 하면,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여전히 저는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묵상 시간에 오르간은 작은 소리로 묵상 곡을 연주하지요. 저는 종종 성가 품의 멜로디를

즉흥 연주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걸 지어서 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 곡들을 바쳤습니다.

그 뒤 대학 시절 이후에는 성당에 발길을 끊기도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은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쓰라린 실패로 심란하기 이를 데 없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다시 빈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홀로 앉아 있던 저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지었던 묵상곡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성가인 ‘침묵의 주’라는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 미사곡을 작곡하고 생활성가밴드인 ‘성밴드’에 참여하며 성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빈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침묵 중에 감실의 붉은 불빛을 쳐다보노라면, 오래전 어느 밤에 아이의 심금을 울리던 영감적인 차임벨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천상의 음악은 지상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름답겠지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결코 슬프지 않을 겁니다.

- 성기영 아가빠 | 작가, 작곡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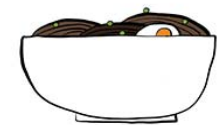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복음 묵상

어려운 선택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 짜장과 짬뽕

어려운 선택을 도와주는 한마디 ‘내가 둘 다 먹어봤는데, 이 가게는 짜장이야.’

맛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러나, 맛을 보았다면 간단한 선택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르 8,29)